베드로전후서 소개

세바스찬 김(Sebastian Kim) 박사는 한국인의 기독교적 관점에서 베드로전후서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확고한 토대로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저는 세바스찬 김(Sebastian Kim) 박사입니다. 코리안센터의 부학장이며, 신학과 공공 영역 교수입니다. 오늘 베드로전후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전후서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로마 지방 소아시아에서 널리 읽혀졌습니다. 베드로 서신은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신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세 가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고한 기초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은 그리스도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살아계신 반석'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선택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서신은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라는 살아계신 반석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견고한 바위입니다. 구원의 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신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성품을 세워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선택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정의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정체성은 한국인들에게 큰 위안과 격려가 됩니다. 복음 안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줍니다.

서신의 세 번째 교훈은 타인을 위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우리의 공헌입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이웃을 전도하는데 크게 관여했습니다. 초기 개신교에는 한국을 복음화하는 데 참여했던 평신도들과 여성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마을을 방문하고, 도시에서도 모임을 가지면서--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60 년대와 70 년대에는 군사 정부 하에서의 인권 투쟁 속에서 한국 교회는 인권 증진과 민주화 운동의 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중요한 측면과 공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요. 물론 한국 교회는 약점도, 문제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는 것도요. 특히 베드로전후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고한 토대를 가르치고 제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품성을 키우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베드로 서신은 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간증과 사회 평화와 정의를 위한 우리의 기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